

전남드래곤즈, 중앙수비수 강민수 영입

순천·광양·여수지역 고교 축구 유망주 출신도 영입해야



전남드래곤즈가 K리그 베테랑 중앙 수비수 강민수(전 소속: 인천 Utd)를 FA로 영입했다.

전남은 강민수가 메디컬테스트를 완료한 후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장이 186cm로 장신인 강민수는 공중볼 경합이 우수하며 대인방어에 강점이 있다. 또한 강민수는 K리그 베테랑 중앙수비수답게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선수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다.

경기 백마중, 고양종합고 출신의 강민수는 2005년 전남에 입단하여 프로 데뷔를 했다.

3시즌 동안 전남에서 59경기를 출전하며 1득점을 기록하였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으로 선발되어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최종예선 등 7년간 A매치 53경기 출전 1득점을 기록하며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했다.

또한 K리그 통산 456경기 출전 15득점 3도움을 기록중인 강민수는 전북, 제주, 수원, 울산, 상주, 부산, 인천에서 활약한 자타공인 K리그 현역 레전드이다.

강민수는 "다시 전남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기쁘고 기대된다"면서 "승격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팀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온만큼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남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남은 지역 축구 활성화 및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순천,광양,여수지역 고교 축구 유망주 출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영입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광양·순천의 기자

광주장애인체육회, 김근수 장애인사격 감독 임명



2022장애인사격월드컵 금메달을 수확한 김근수 선수가 광주 장애인사격팀을 이끌어 갈 지도자로 임명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사격

팀 김근수 감독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김근수 감독은 지난 2016년부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선수로 활동했다.

2016 리우 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했으며 2018 청주 IPC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금메달, 2019 시드니 IPC 세계 사격선수권대회 금메달 등을 획득했다.

또 지난해 창원에서 열린 2022 창원장애인사격월드컵대회에서 공기소총 10m(R4 SH2) 혼성 단체전과 공기소총 10m(R5 SH2)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조일상 기자

골 침묵 손흥민...콘테 "계속 발전해야"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3골

9월 레스터시티와 경기서 헤트트릭 후 무득점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애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경기하고 있다.

그 3자전 황희찬(울버햄튼)의 결승골을 도운 게 유일한 공격포인트였다. 답답한 건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도 마찬가지다.

그는 빌라전에서 패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해리 케인과 손흥민, 히샤리송, 데얀 클루셀스키가 있지만, 이중 두 명이 다치면 문제가 생긴다. 올 시즌 중중 이런 일이 생긴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며 "상대 수비가 내려서 공격수들이 고전했다. 하지만 벤치에 경기를 바꿀 해결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토트넘은 히샤리송과 클루셀스키가 부상으로 빌라전에 뛰지 못했다. 대신 브리안 힐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득점에 실패했다.

두 골을 내준 수비진에는 "중앙 수비수들은 경기를 잘했다. 두 명의 미드필더와 윙백들도 괜찮았다"고 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1무1패로 승리가 없는 토트넘은 리그 5위(승점 30·9승3무5패)로 밀려났다.

콘테 감독은 '톱4'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시즌은 기적이었다. 그때는 리그만 치렀고 12~13명의 최고의 선수가 부상 없이 마지막 15경기를 소화했다"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뉴시스

1부 승격 준비 광주FC, 네덜란드 수비-브라질 공격 보강

유럽 빅리그서 댄 수비수 '티모' 영입



광주FC, 유럽 빅리그에서 댄 수비수 티모 영입.

/광주FC 제공

올해 프로축구 1부 리그 K리그1로 승격하는 광주FC가 외국인 선수 영입을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2일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빅리그에서 댄 수비수

티모(29·Timo Letscher)를 영입했다. 188cm에 84kg인 티모는 공중 장악과 대인 방어, 안정적인 공 처리가 강점인 중앙 수비수다. 정확한 킥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등 빌드업 능력

이 뛰어난다고 광주는 소개했다.

티모는 네덜란드 명문 클럽 아약스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성장해 2012~2013시즌 FC흐로닝언에서 프로에 데뷔했다. 이후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와 이탈리아(사수올로, 세리에A), 독일(함부르크SV, 분데스리가) 등 유럽 빅리그에서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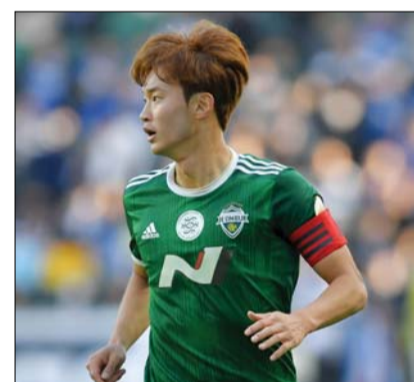
광주는 전남에는 팀 공격을 책임질 브라질 출신 공격수 토마스(29·Thomas Jaguaribe Badinelli)를 영입했다.

180cm에 76kg인 토마스는 동료들 활용한 연계 플레이는 물론 공간 침투와 침착한 마무리가 장점이었던 공격수라고 광주는 소개했다. 좌우 측면과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하다.

2011년 CR플라멩구(브라질 세리에A, 리우 데 자네이루주 1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토마스는 데뷔 시즌 팀의 주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조일상 기자

축구 국가대표 김진수 소아암어린이에 3천만원 기부



축구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 김진수(전북)가 소아암 등을 앓는 어린이들을 위해 3000만원을 기부했다.

전북 구단은 2일 "김진수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진수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총 누적금액 1억원 이상을 희망브리지를 통해 꾸준히 기부해왔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